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 기질 및 성격의 변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¹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²
최효선¹ · 김대호^{1,2} · 김은경¹

Change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Hyosun Choi, M.A.,¹ Daeho Kim, M.D., Ph.D.,^{1,2} Eunbyeong Kim, Ph.D.¹

¹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uri,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 to identify the stability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patients.

Methods : The number of subjects was 102, of which 33 were PTSD patients and 69 were non-PTSD patients. To demonstrate the change in individual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were administered repeatedly on the subjects. Repeated measures ANOVA and simple main effects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 When analysed by dividing the subjects into PTSD groups and non-PTSD group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tests did not appear in the non-PTSD groups,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tests were significant in Harm Avoidance (HA), Reward Dependence (RD), Self-Directedness (SD), Cooperativeness (C).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time and group interaction effects of HA, RD, SD and C were significant, and that the main effects of time of HA, RD, SD and C were significant.

Conclusions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n the course of experience and recovery of traumatic events, we have clinically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temperament, known as stable variables, are possible.

KEY WORDS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Temperament · Personality · TCI.

서 론

기질과 성격은 총제적인 차원으로서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둘 다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기질은 선천적-유전적-생물학적 차원, 성격은 후천적-환경적-교육적 차원인 인격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1,2} 또한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는 반면, 성격은 기질을 기본적인 틀로 두고 발달하

게 되는데, 개인의 목표나 가치에서의 차이와 같이 자기와 관련된 좀 더 의식적인 부분을 반영한다.³⁾

Cloninger는 기질과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심리생물학적 인격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기질은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4가지 요인으로, 성격은 자율성(Self-Directed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ST)의 3가지로 구

Received: September 22, 2020 / Revised: November 6, 2020 / Accepted: November 9, 2020

Corresponding author: Eunbyeong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153 Gyeongchun-ro, Guri 11923, Korea

Tel : 031) 560-2272 · Fax : 031) 557-2272 · E-mail : aidaworld@hanmail.net

성된다.⁴⁾ 또한 생리학적으로 결정되는 기질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성격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5,6)}

인격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기질과 성격의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ymptoms Disorder, PTSD)는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⁷⁾ PTSD는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⁸⁾ 인격을 하나의 상태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외상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인격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의 경험이나 뇌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인격이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다.^{7,9)} 뿐만 아니라 외상 사건을 경험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안정적인 인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취약성을 지니게 한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장면에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의 변화를 TCI 반복 측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며, 변화의 양상이 PTSD 집단과 다른 정신질환 집단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200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성인들 중 치료 경과 탐색을 위해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TCI 검사를 반복 수행한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DSM-V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 하에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으며, 이들 중 뚜렷한 정신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5명의 자료와 기질성뇌증후군, 신경인지장애, 지적장애 등 기질학적 병변 혹은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대상자 11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체 문항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의 자료도 제외하여 총 102명(남 75명, 여 27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 중 33명이 PTSD로 진단 받았다(남 21명, 여 12명).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 비PTSD 질환으로 진단한 환자는 모두 69명(남 54명, 여 15명)으로 우울장애 21명, 조현 스펙트럼장애 18명, 불안장애 10명, 양극성장애 6명, 물질사용장애 4명, 성격장애 4명, 품행장애 2명, 성 관련 장애 2명, 강박장애 1명, 신체증상장애 1명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의 기간은 평균은 PTSD 집단에서 14.7개월, 비PTSD 집단에서 19.9개월이었다. 연령 및 재검사 기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환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후향적 연구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승인(IRB No : 2019-03-018-003)을 받아 진행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groups

	No. (%)		
	PTSD (n=33)	Non-PTSD (n=69)	Total (n=102)
Age, mean (SD), y			
T1	41.00 (14.92)	28.52 (12.15)	32.56 (14.30)
T2	42.30 (15.0)	30.13 (12.36)	34.07 (14.39)
Period of re-examination mean (SD), T2-T1 (month)	14.7 (9.36)	19.9 (17.57)	18.24 (15.52)
Female	12 (36.4)	15 (21.7)	27 (26.4)
Diagnosis			
PTSD	33 (100)		
Depressive disorders		21 (30.4)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18 (26.1)	
Anxiety disorders		10 (14.5)	
Bipolar disorders		6 (8.7)	
Alcohol use disorders		4 (5.8)	
Personality disorders		4 (5.8)	
Conduct disorders		2 (2.9)	
Sexual related disorders		2 (2.9)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1 (1.4)	
Somatic symptom disorders		1 (1.4)	

2. 도구

연구 대상자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격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Min 등¹⁷⁾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TCI 성인용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TCI 성인용은 총 14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4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기질 척도 4개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성격 척도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살펴본 내적합치도는 1차 검사에서 0.605, 2차 검사에서 0.613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각 집단별로 기질 및 성격 특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후,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차이와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항목에 대해서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기술 통계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비교

PTSD 집단과 비PTSD 집단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TCI 측정 결과치의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PTSD 집단과 비PTSD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CI measures

Group	Measures of TCI subfactors	M (SD)	
		T1	T2
PTSD	Novelty seeking	53.18 (12.41)	51.85 (14.94)
	Harm avoidance	63.33 (12.01)	70.76 (11.93)
	Reward dependence	47.21 (12.27)	37.30 (15.03)
	Persistence	43.73 (13.21)	39.12 (15.03)
	Self-directedness	38.64 (11.12)	32.94 (11.02)
	Cooperativeness	41.67 (12.93)	35.76 (14.68)
	Self-transcendence	50.00 (9.45)	51.94 (11.09)
Non-PTSD	Novelty seeking	56.51 (14.02)	55.52 (13.59)
	Harm avoidance	63.26 (13.80)	62.84 (15.34)
	Reward dependence	39.61 (14.68)	39.64 (16.18)
	Persistence	41.28 (12.91)	40.29 (14.59)
	Self-directedness	38.74 (15.13)	39.13 (14.60)
	Cooperativeness	38.80 (17.67)	39.01 (15.90)
	Self-transcendence	50.55 (11.91)	50.06 (12.06)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값을 통해 연령, 재검사 기간 병무청 제출용 검사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1차 검사 연령[F(1,100)=4.98], 2차 검사 연령[F(1,100)=4.24] 재검사 기간[F(1,100)=6.28], 병무청 제출용 검사 유무[F(1,100)=68.68]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PTSD와 비PTSD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2. 기질 및 성격의 변화 양상

집단과 측정 시기에 따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측정시기)×2(집단)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Table 3.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groups and time

	SS	df	MS	F
Harm avoidance				
Within groups	8295.838	102		
Harm avoidance	547.544	1	547.544	7.754†
Time x group	686.858	1	686.858	9.727†
Error	7061.436	100	70.614	
Between groups				
Group	712.472	1	712.472	2.293
Error	31070.509	100	310.705	
Reward dependence				
Within groups	11522.303	102		
Reward dependence	1089.572	1	1089.572	11.678*
Time x group	1102.396	1	1102.396	11.815*
Error	9330.335	100	93.303	
Between groups				
Group	309.850	1	309.850	0.881
Error	35178.527	100	351.785	
Self directedness				
Within groups	6655.641	102		
Self-directedness	314.205	1	314.205	5.301*
Time x group	413.734	1	413.734	6.980*
Error	5927.702	100	59.277	
Between groups				
Group	442.140	1	442.140	1.383
Error	31968.943	100	319.689	
Cooperativeness				
Within groups	10273.767	102		
Cooperativeness	361.590	1	361.590	3.809
Time x group	418.943	1	418.943	4.413
Error	9493.233	100	94.932	
Between groups				
Group	1.675	1	1.675	0.004
Error	41178.306	100	411.78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실시하였다. Table 3에 요약된 결과를 보면,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에서 시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험회피 $F(1,102)=7.754, p<0.01$, 사회적 민감성 $F(1,102)=11.678, p<0.01$, 자율성 $F(1,102)=5.301, p<0.05$]. 또한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위험회피 $F(1,102)=9.727, p<0.01$, 사회적 민감성 $F(1,102)=11.815, p<0.001$, 자율성 $F(1,102)=6.980, p<0.05$, 연대감 $F(1,102)=4.412, p<0.05$ 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보다 면밀하게 밝히기 위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4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PTSD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TCI 측정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PTSD 집단의 위험회피는 T1에서 T2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PTSD 집단의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 연대감은 T1에서 T2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반면 비PTSD 집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TCI를 반복 측정하여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른 정신질환 집단에 비해 PTSD 집단에게서 이와 같은 변화가 두드러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질적 측면에서는 위험회피와 사회적 민감성이, 성격적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연대감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질과 성격이 절대적으로 고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PTSD 집단에서만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TSD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험회피가 높아지고,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과 연대감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nalysis over time

Group	Time	Paired differences	Std. error	95% CI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Harm avoidance					
PTSD	T1 T2	-7.424*	2.111	-11.723	-3.125
Non-PTSD	T1 T2	0.420	1.417	-2.407	3.248
Reward dependence					
PTSD	T1 T2	9.909*	2.625	4.561	15.257
Non-PTSD	T1 T2	-0.029	1.558	-3.137	3.079
Self-directedness					
PTSD	T1 T2	5.697*	1.711	2.211	9.183
Non-PTSD	T1 T2	-0.391	1.367	-3.118	2.336
Cooperativeness					
PTSD	T1 T2	5.909*	2.383	1.054	10.764
Non-PTSD	T1 T2	-0.217	1.664	-3.537	3.103

*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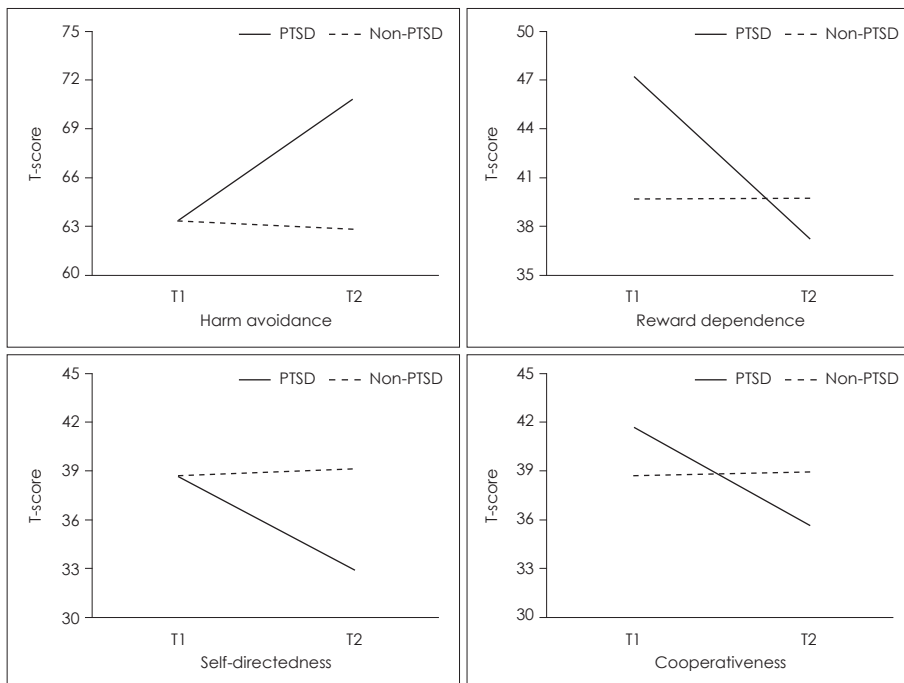


Fig. 1.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nalysis over time.

첫 번째, 위협회피는 PTSD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회피 증상과 연관이 있는 요인이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PTSD를 진단하기 위해서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후에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를 충족해야한다.⁸⁾ 이로 볼 때, PTSD를 진단 받은 환자들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를 상기시키는 자극 피하고자 내, 외부적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위협회피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적 민감성은 T1에서는 PTSD 집단이 비PTSD 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T2에서는 PTSD 집단의 사회적 민감성이 감소하여 크게 비PTSD 집단보다 낮아졌다. 사회적 민감성은 TCI 이론의 초기 개념 중 하나인 보상 의존성(Reward Dependence)에서 보완된 개념으로, 사회적 보상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뜻한다.³⁾ PTSD 집단이 외상 사건 경험 직후 보여주는 높은 사회적 민감성은 심각한 외상 경험이 외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서의 반응성을 높이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¹⁾ 실제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민감성은 PTSD의 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하지만 PTSD 증상이 장기화되면서 PTSD 집단의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이 점차 어려워지며, 이로 인하여 점차 사회적 민감성의 수준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³⁾

세 번째, 자율성과 연대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적, 외적 대처 능력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14,15)} 자율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효능감의 일환으로, 자율성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와 연계하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16,17)} 외상 사건을 경험한 PTSD 환자는 세상을 위협하게 지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자율성과 연대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18,19)} 게다가 낮아진 자율성과 연대감은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회복 탄력성을 저해하여 문제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17,19)} 이처럼 낮은 자율성과 연대감은 PTSD 환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극복하고 자정할 만한 내적, 외적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¹⁶⁾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성격은 물론, 비교적 안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진 기질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PTSD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는 것은 외상적 사건이 인격의 안정성을 뒤흔들 만큼의 강렬한 영향을 끼치며, PTSD 환자는 기질 및 성격 변화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로 외상사건으로 표현되는 외부의 강렬한 자극이 개인의 인격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상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인격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외래 및 병동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질병 사후의 측정치만을 확인함으로써 외상사건이 인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간 기간은 평균 약 15개월로, 일부 대상자의 경우 PTSD 치료 중간 두 번째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의 편향이 있을 수 있겠다. 보다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 및 진료 종료 후에도 기질 및 성격적 변화의 양상이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이 진행되었다. PTSD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환자에게 내려진 주요 진단만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과 같은 여타 정신질환과의 공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병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앞서 언급한 우울을 비롯하여 공병에 의한 혼입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Goldsmith HH, Alansky JA.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 Consult Clin Psychol* 1987;55:805.
- (2) Rothbart MK, Posner MI, Kieras J. Temperament, att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Hoboken, NS: John Wiley & Sons, 2006.
- (3) Cloninger CR.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 Gen Psychiatry* 1987;44:573-588.
- (4) Cloninger CR, Svrakic DM, Przybeck TR. A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 Gen Psychiatry* 1993;50:1-16.
- (5) Cicchetti D, Cohen DJ. Perspectives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Hoboken, NS: John Wiley & Sons, 1995.
- (6) Thompson RA, Winer AC, Goodvin, R. The individual child: temperament, emotion, self, and personality. In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2003. p.225-266. Psychology Press.

- (7) Caspi A, Roberts BW, Shiner RL. Personality development: Stability and change. *Annu Rev Psychol* 2005;56:453-484.
- (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lishers, 2013.
- (9) Alea N, Diehl M, Bluck S. Personality and emotion in late life.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San Diego, CA: Elsevier, 2004.
- (10) Min BB, Oh HS, Lee JY.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family manual. Seoul: Maumsarang;2007. p.6-14.
- (11) Zawadzki B, Popiel, A. Temperamental traits and severity of PTSD symptoms. *J Individ Differ*;2012.
- (12) Lee SR. Trajectorie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growth among emergency personnel. Seoul: Ewha Womans Univ;2009.
- (13) Laffaye C, Cavella S, Drescher K, Rosen, C. Relationships among PTSD symptoms, social support, and support source in veterans with chronic PTSD. *J Trauma Stress* 2008;21:394-401.
- (14) Cockram DM, Drummond PD, Lee CW. Role and treatmen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Vietnam veterans with PTSD. *Clin Psychol Psychother* 2010;17:165-182.
- (15) Newman E, Kaloupek D. Overview of research addressing ethical dimensions of participation in traumatic stress studies: autonomy and beneficence. *J Trauma Stress* 2009;22:595-602.
- (16) Yoon SJ, Jun CS, An HY, Kang HR, Jun TY. Pattern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heir association with symptom severity. *Compr Psychiatry* 2009;50:226-231.
- (17) North CS, Hong BA, Suris A, Spitznagel EL. Distinguishing distress and psychopathology among survivors of the Oakland/Berkeley firestorm. *Psychiatry* 2008;71:35-45.
- (18) Kotler M, Cohen H, Matar MA, Amir M, Bleich A, Kaplan Z. Temperamental variables in PTSD patients. *Anxiety* 1996; 2:251-253.
- (19) Lee YJ, Kim HW. Association of traumatic event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9;25:46-59.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기질과 성격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한다

방법

PTSD 환자 33명과 비PTSD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1, 2차에 걸쳐 측정하였고, 그 결과값에 대해 반복측정 ANOVA와 단순 주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비PTSD 집단에서는 1차와 2차 검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PTSD 집단에서는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 연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 연대감에서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과 시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외상적 사건이 자율성, 연대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물론, 위험회피와 사회적 민감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심 단어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기질 · 성격 · TCI.